

생태체계 요인이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효련*

¹강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Ecosystem Factors that Affect Abandoned Mine Area Residents' Life Satisfaction

Hyo-Lyun Roh*

¹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폐광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폐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주민 195명이며 2014년 4월 3일부터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폐광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정도는 일반정신건강 척도(KGH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생활만족도는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미래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시체계 요인군의 정신건강이 생활만족도가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하부 변수인 우울과 불안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 요인에서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시체계 요인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폐광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시체계요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미시체계요인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사회적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실천적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gure out measures to improve abandoned mine area residents' life satisfaction from the viewpoint of ecosyste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5 residents aged at least 30 years and structured survey were used collected from April, 3, 2014 to 20. The levels of abandoned mine area residents' mental health were measured using the general mental health scale and the residents' life satisfaction was examined using a life satisfaction scale. The abandoned mine area resident's life satisfaction was a little higher than the middle and their future life satisfaction was shown to be the lowest. Out of the microsystemic factors, mental health degree contributing to the quality of life and those with lower depression and anxiety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None of the mesosystemic factors, were not found to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ut of the macrosystemic factors were found to be mine area special law in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 order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ne locals seem to need practical strategies related for maintaining a healthy mind and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revitalization policy.

Keywords : Abandoned mine area, Ecosystem perspective,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Mental health.

1. 서론

생활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과거를 비롯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서적, 지적, 인지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연속성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복합적인 요인으로서 개인의 기대와 그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1]. 생활만족도는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가족, 이웃,

*Corresponding Author : Hyo-Lyun Roh(Kangwon National Univ.)

Tel: +82-10-2456-3468 email: withtry@kangwon.ac.kr

Received June 25, 2015

Accepted October 8, 2015

Revised (1st July 14, 2015, 2nd July 22, 2015)

Published October 31, 2015

직장, 종교, 지역사회 환경 등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2].

지역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기능에 악영향을 주어서 생활만족도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3].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고 있다[4].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역경제와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온 대표적인 사건은 탄광의 폐쇄이다. 1989년에 실시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이루어진 탄광의 폐쇄는 드라마의 소재로 빈번히 사용될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는 탄광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지역의 공동화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5]. 이에 탄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었다. 폐특법의 시행이 이루어진 것이 20년 가까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폐광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한부모 가정과 무의탁 노인의 문제, 높은 노인 자살률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6]. 즉, 탄광의 붕괴는 단순한 직업의 상실과 경제적인 피해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붕괴와 인생의 파괴를 경험하게 하였다.

지역산업의 붕괴로 인생의 파괴를 경험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환경 모두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하여 생활만족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7].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항상 변화하는 결과물로 파악하는 생태체계학적인 관점과 연결된다[8].

생태체계적 관점은 하나의 개체와 이 개체와 연결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체계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관점이다. 인간과 환경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때는 상호작용적 기능이 향상되나,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 건강의 파괴와 사회적 기능의 위축 등으로 인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지체되며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환경도 손상을 입게 된다[9].

폐광지역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폐광지역의 경제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6], 폐광지역의 환경과 오염에 관한 연구[10], 기타 폐광지역 관련 연구[11-13]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폐광지역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과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서 지역주민 개인의 안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폐광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강원도 삼척시의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역 내의 노인대학, 복지관, 상점 및 가옥 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4월 3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비확률 표집의 무작위 편의표집법에 따라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의 취지 및 동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배포하여 본인이 직접 무기명으로 기입하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30부를 배포하여 213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2.6%), 다만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일관된 중간값을 보이거나 무응답이 많은 18부를 제외한 19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대상자의 수는 G power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표본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80%, 양측검정, 유의수준 0.01, 효과크기 0.15를 기준으로 134명이 필요했다[14].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8문항(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월 소득, 종교, 탄광근무경험, 거주기간), 폐특법 시행 이후 지역 활성화 정도,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정신건강 20문항, 생활만족도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미시체계(성별, 연령, 직업유무, 소득, 교육수준, 정신건강), 중간체계(종교, 거주기간, 탄광근무 경험), 거시체계(폐특법 시행 이후 지역 활성화 정도, 지자체 정책)를 독립변수로,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정의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2.3 생태체계 요인

2.3.1 미시체계 요인

미시체계 요인은 성별과 직업유무, 연령, 소득, 교육

수준, 정신건강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유무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연령은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의미하며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으로 5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소득수준은 가정의 월소득을 의미하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에서 대졸이상까지 4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신건강진단 검사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사용이 허용된 측정도구인 정신건강척도(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Shin(2001) [15]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한국판 정신건강척도(Korea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0.89$). 4점 리커트 척도(likert)로 측정하였으며(1 = '매우 그렇다', ~, 4 = '매우 아니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중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역채점하였다.

2.3.2 중간체계 요인

중간체계 요인은 종교활동, 거주기간, 탄광근무경험으로 구성하였다. 거주기간은 폐광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탄광근무경험은 탄광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경우와 탄광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2.3.3 거시체계 요인

거시체계 요인은 폐특법 시행이후 지역 활성화 정도, 차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구성하였다. 폐특법 이후의 지역 활성화 정도는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로 3단계로 구성하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에는 경제, 교육, 복지, 건강의 4가지 정책으로 구성하였다.

2.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과거, 현재, 미래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만족도에 대한 검사는 일반사용이 허용된 측정도구인 Choi(1986) [16]에 의해 개발된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0.92$). 이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소는 과거 생활만족도 6문항, 현재생활만족도 8문항, 미래생활만족도 6문항으로 구성되며, 생활만족도는 이들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한 전체 문항의 평균의 합으로 복합지표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5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 측정도구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추출모델은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법으로, 회전방식은 직각회전인 베리맥스(varimax)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는 1, 요인적 재량은 .4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개념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 요인적재량이 요인에 따라 최소 .449에서 최대 .805까지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는 .510~.804로 나타났다. KMO 표본적합도와 Bartlett 구형검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뢰도는 정신건강 전체가 Cronbach's $\alpha=.897$ 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우울은 $\alpha=.914$, 불안은 $\alpha=.860$ 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 전체가 $\alpha=.896$, 하위요인별로는 과거생활만족도는 $\alpha=.654$, 현재생활만족도는 $\alpha=.842$, 미래 생활만족도는 $\alpha=.777$ 로 나타났다.

2.6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척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살펴보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폐광지역 주민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 수준은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회귀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여부는 왜도 및 첨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미시 및 중간체계 변수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생태체계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the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Variable	Items	Factor loading	Sum of squares	Variance%	KMO	Bartlett	Cronbach' a
Mental health(total)	20						.897
Social maladaptive	10	.585 ~ .750	6.06	30.31	.875	2073.805 ***	.914
Depression	7	.542 ~ .695	4.05	20.25			.860
Anxiety	3	.588 ~ .613	2.37	19.74			.533
Life satisfaction(total)	20						.896
Past	6	.638 ~ .859	4.39	29.28	.864	1897.589 ***	.654
Current	8	.684 ~ .866	2.86	19.07			.842
Future	6	.676 ~ .801	2.80	18.68			.777

*** $p < .0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icro system factor (n=195)

Variable	N(%)	Missing (%)
Gender	Male	74(37.95)
	Female	121(62.05)
Age (year)	30-39	12(6.15)
	40-49	39(20.00)
	50-59	39(20.00)
	60-69	36(18.46)
	70≤	68(34.87)
Education	Elementary	73(37.43)
	Middle school	32(16.41)
	High school	59(30.25)
	Collage	29(14.87)
	≥100	91(46.67)
Income (ten thousand won)	100-200	39(20.00)
	200-300	32(16.41)
	300-400	11(5.64)
	400≤	12(6.15)
Job (number)	have	80(41.04)
	don't have	113(57.95)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이하가 73명(37.43%)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이상이 29명(14.8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수입별로는 100만원 이하가 91명(46.67%)로 가장 많았으며 100~200만원이 39명(20.00%)으로 200만원이하의 수입이 전체 66.67%를 나타내고 있어서 폐광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취약성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이 없는 경우가 113명(57.95%)으로 과반이 넘었다.

폐광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해 보면, 평균평점 2.24±.4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우울이 가장 높은 2.52±.61점, 불안(2.22±.64점), 사회부적응(2.09±.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중간값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정도가 중간 정도이며, 하위요인중에는 우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연구 결과

3.1 미시체계 요인에 대한 분석

미시체계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성별로는 여성이 121명(61.05%)으로 남성 74명(37.95%)에 비해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68명(34.8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2명(6.15%)으

3.2 중간체계 요인에 대한 분석

중간체계 요인에서는 종교는 무교 85명(43.59%), 기독교 61명(31.28%), 불교 40명(20.51%), 가톨릭 7명(3.59%), 기타 2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탄광근무경험에서는 없다가 137명(70.26%), 있다 54명(28.20%) 이었다(Table 4).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ntal health

Variable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Mental health(total)	2.24±.44	1.15	3.70	.25	.83
Social maladaptive	2.09±.52	1.09	3.73	.19	.03
Depression	2.52±.61	1.00	4.00	.26	.12
Anxiety	2.22±.64	1.00	4.00	.10	-.17
Life satisfaction(total)	2.81±.44	1.00	3.80	-.53	1.08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mezzo system factors (n=195)

Variable	N(%)	Missing (%)	
Religion	Buddhism	40(20.51)	
	Christian	61(31.28)	
	Catholic	7(3.59)	-
	Other	2(1.03)	
	None	85(43.59)	
Residential period (year)	≥ 10	26(13.30)	
	11 ~ 20	25(12.80)	1
	21 ~ 30	31(15.90)	(0.5)
	31 ≤	112(57.40)	
Mine carrer (year)	have	54(28.20)	3
	don't have	138(70.26)	(1.54)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macro system factors (n=195)

Variable	N(%)	Missing(%)	
Regional activation	Helpful	158(81.0)	
	Do not know	33(16.90)	-
	Did not help	4(2.10)	
Propulsion policy	Economy	103(52.8)	
	Education	12(6.20)	4
	Wellfare	59(30.30)	(2.1)
	Health	17(8.70)	

3.3 거시체계 요인에 대한 분석

거시체계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한 경우가 81.0%로 가장 많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2.1%를 나타내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80%로 가장 높았고, 복지정책(30.30%), 건강정책(8.70%), 교육정책(6.20%) 순이었다(Table 5).

3.4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 수준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의 정도는 평균평점 2.81±.44점으로 4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현재만족은 2.92±.6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미래만족

은 평균평점 2.62±.6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Table 6).

Table 7.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by micro system and meso system (n=195)

Variable	Life satisfaction		
	Mean±SD	t or F	
Gender	Male	2.79±.44	-3.25
	Female	2.81±.43	
Age (year)	30 ~ 39	2.85±.31	.029*
	40 ~ 49	2.84±.31	
	50 ~ 49	2.97±.41	
	60 ~ 69	2.77±.49	
	70 ≤	2.69±.48	
Income (ten thousand won)	≥ 100	2.69±.50	4.855**
	100-200	2.79±.32	
	200-300	2.95±.34	
	300-400	3.16±.29	
	400 ≤	2.95±.43	
Education	Elementary	2.76±.51	3.190*
	Middle school	2.65±.43	
	High school	2.93±.35	
	Collage	2.85±.35	
Job	Have	2.90±.38	2.661**
	Don't have	2.73±.46	
Religion	Buddhism	2.75±.45	1.096
	Christian	2.80±.51	
	Catholic	2.54±.47	
	Other	2.90±1.20	
	None	2.86±.35	
Mine carrer	Have	2.78±.57	-.524
	Don't have	2.81±.38	

*p<.05, **p<.01

3.5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의 차이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의 경우 연령, 수입 및 교육 수준 특성변인들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우선 연령의 경우 50~59세에서 2.97±.4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70세 이상이 2.69±.48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50대가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300~400만원 사이가 3.16±.29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2.69±.50로 가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life satisfaction

Variable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Life satisfaction(total)	2.81±.44	1.00	3.80	-.53	1.08
Past	2.65±.62	1.00	4.00	-.44	.67
Current	2.92±.66	1.00	4.00	-.67	.59
Future	2.62±.66	1.00	4.00	-.38	.34

Table 8. Regression results for lif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total)		Past life satisfaction		Current life satisfaction		Future life satisfaction	
	β	t	β	t	β	t	β	t
Constant		12.697***		5.776***		6.116***		5.535***
Micro system								
Gender	.019	.538	-.102	-.839	-.177	-1.704	-.021	-.224
Age	-.020	-.472	-.046	-.322	.142	1.163	.167	1.563
Education	.023	.667	-.041	-.356	-.048	-.481	.007	.076
Job	.020	.537	-.245	-1.973	-	-	.107	1.143
Depression	.794	19.808***	-.745	-5.466***	-.305	-2.525*	-.294	-2.868**
Anxiety	.611	13.878***	-.067	-.450	-.624	-4.909***	-.829	-7.350***
Meso system								
Buddhism	.019	.461	-.241	-1.762	-.226	-1.885	-.280	-2.709*
Christian	-.016	-.506	-.140	-1.293	-.091	-.957	-.103	-1.263
Other	-.009	-.250	.173	1.447	.242	2.308*	.089	.993
None	.062	1.463	-.220	-1.541	-.202	-1.652	.040	.375
Mine carrer	.024	.622	.007	.050	.192	1.649	.029	.288
Residential period	-.084	-1.772	-.083	-.512	.096	.680	.231	1.900
Macro system								
Welfare policy	.000	.003	.038	.287	-.008	-.070	-.122	-1.219
Health policy	.029	.727	.099	.724	-.207	-1.718	-.183	-1.772
Other policy	.085	2.385*	.089	.736	-.021	-.195	-.118	-1.285
Economy policy	.122	3.031**	-.232	-1.699	-.135	-1.130	-.062	-.604
Regional development	.123	3.798***	-.051	-.463	-.164	-1.699	-.110	-1.332
R^2		.951		.435		.578		.675
Durbin-Watson		1.623		2.306		1.795		2.167
F		66.174***		3.578***		5.345***		7.979***

* $p < .05$, ** $p < .01$, *** $p < .001$

Note : Gender 0=Female, Job 0=Have, Mine carrer 0=Have

장 낮아서 수입이 적은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2.93±.3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졸업이 2.65±.4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7).

3.6 생태체계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태체계 요인이 탄광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가 전체생활만족도,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인 모든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여 VIF 값이 4이상인 경우의 독립변수인 사회부적응, 월소득, 천주교를 제외시키고 VIF 값이 1에서 2사이에 있는 독립변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변인 중 성별과 직업유무, 탄광근무경험 유무는 소수자를 기준변수로 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전체생활만족도와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구분하여 실행하였다.

종속변수가 전체생활만족도인 경우,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95.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미시체계 요인에서는 우울($\beta=.794, p<.001$)과 불안($\beta=.611, p<.001$)이었고 중간체계 요인에서는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거시체계 요인에서는 필요한 정책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경제정책($\beta=.122, p<.001$)과 기타정책($\beta=.085, p<.001$)이 폐특별에 의한 정책 결과에서는 경제활성($\beta=.123,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과거생활만족도인 경우,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43.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미시체계 요인의 우울($\beta=-.745, p<.001$)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현재생활만족도인 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57.8%로 높게 나타났다. 미시체계 요인에서는 우울($\beta=-.305, p<.05$)과 불안($\beta=-.624,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체계 요인에서는 기타종교($\beta=.242, p<.0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체계 요인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미래생활만족도인 회귀분석의 경우, 독립 변수들의 설명력은 67.5%로 높게 나타났다. 미시체계 요인의 우울($\beta=-.294, p<.01$)과 불안($\beta=-.829, p<.001$), 중간체계 요인에서는 불교인 여부($\beta=-.280, p<.0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시체계 요인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생태체계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미시체계 요인에서 연령은 60세 이상이 53.33%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37%, 월수입도 200만원 이하가 66%이상, 직업이 없는 경우가 58%였다. 본 연구에서 낮은 경제력과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정도는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Cha, Kim(2015)[2]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는 주관적이어서 고품과 낮은 경제력 등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기간은 이 지역에서 3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57%였고 10년 미만인 경우는 13%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이 지역에서 반평생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고 폐광지역의 몰락 후 유입된 인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탄광근무경험이 28%이상이어서 탄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탄광마을은 석탄을 캐는 탄광을 일터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많은 탄광마을이 사라졌지만, 광부들의 집단주거가 마을 단위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가 삼척시의 도계읍이다[5]. 이 도계읍이 본 연구가 이루어진 곳으로 한때 국내 석탄 최대생산지였던 도계읍은 지역인구의 급격한 이탈이 발생하여 탄광이 성업하였던 1973년 21,771명에서 2011년에는 12,295명으로 감소하였다[12]. 허물어지고 있는 사택과 빈집, 쇠락한 상가지역이 눈에 띄게 보이나 현재도 남아있는 탄광을 중심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탄광이 성업하였던

시기에는 9개의 탄광이 있었지만 현재는 2개의 탄광이 존재하고 있어서 광부들이 생활하는 터전인 동시에 폐광 지역이다.

거시체계 요인에서는 폐특법을 이용한 정책이 지역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경우가 81%였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에서는 경제활성화 정책(52.8%), 복지 정책(30.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특법을 이용한 정책이 지역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생활만족도 중 현재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미래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폐광지역주민들이 현재나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hang, Lim, Bae(2014)[17]의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중’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미시체계적인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연령의 경우 50대가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U자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8]와 다소 상이하였다. 수입이 적은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개인의 소득(소비)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유사하였다[18].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신건강($\beta=-.745$)과 경제적인 부분($\beta=-.745$)이 복합하여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폐특법의 시행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전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생활만족도는 기타 종교인여부와 미래생활만족도는 불교인 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Paek(2002)[19]의 노인의 건강증진 습관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일련의 구체적인 객관적 환경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고 평가한 경험을 직접 측정하여야 하는데, 소득, 교육수준, 용모, 건강 등이 생활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20]고 하여 본 연구와는 상이한 보고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아주 높아서 우울과

불안이 폐광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높다고 하였다. 세종시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충청남도 지역주민들에게서 장기간에 걸친 잠재적인 효과로 인해 우울증 등의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4]라고 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과 불안이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년성인에서 정신건강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하였다[21]. 따라서 폐광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안으로 보여진다. 생활만족도는 일시적인 경험이지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생활만족감은 현재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지만, 생활만족감을 형성시키는 요인들은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11].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폐광지역은 고령화 지역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생활만족도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시체계 요인의 정신건강 요인이었고 거시체계에서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22], 본 연구에서도 미시체계의 정신건강과 거시체계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지역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체계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광지역의 자금으로 시행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강화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중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정서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정주의식의 함양과 자부심을 증진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서 최종적으로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 및 함의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자료수집이 임의 표본조사이며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얻어진 것이므로 일반화가 어렵고,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생태체계적인 변인 사이의 매개 내지 조절효과를 갖는 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

했다. 후속연구를 통해 폐광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을 위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 및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S. Chang, K. S. Park,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r the aged: From the ecosystem perspectiv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2), pp. 232-266, 2012.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2.32.2.232>
- [2] J. S. Cha, N. J. Kim, "The influence of career success on life satisfaction of Korean workers: based on fit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ce and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1), pp. 293-308, 2015.
- [3] M. C. Lee, "A literature review on social capital in enterpris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of Skills Development*, 10(1), 1-22, 2007.
- [4] K. J. Park, G. U. Lim, J. Y. Moon, Y. Hwangbo, Y. H. Park, "Relationship between policy dispute on Sejong city planning and local residents' health statu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55(5), pp. 491-498, 2012.
DOI: <http://dx.doi.org/10.5124/jkma.2012.55.5.491>
- [5] S. G. Yoo, B. H. Lee, "Methods of activating the mining area living spac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businesses",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11(14), pp. 1-2, 2011.
- [6] S. H. Chung, "Socioeconomic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Kangwon southern-belt mine area", *Korean Regional Sociology*, 7(2), pp. 219-246, 2006.
- [7] K. E. Chang,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death anxiety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9, pp. 267-286, 2010.
- [8]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9.
- [9] C. B. Germain,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An ecological view", pp. 3-19,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91.
- [10] K. T. Kim, M. A. Kang, "Mathematical approach for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of soils from abandoned mines",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18(3), pp. 297-302, 2008.
- [11] J. J. Lee, H. L. Roh, "Factors of the quality of lif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living in abandoned mine reg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5(9), pp. 5637-5643,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9.5637>
- [12] Samcheck City, "The school restructuring of feasibility report and basic design on dogae area", Korea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3.
- [13] J. S. Kang, "A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life

-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5(2), pp. 875-882,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2.875>
- [14] J. Cohen,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pp. 155-159, 1992.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12.1.155>
- [15] S. I. Shi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20 & KGHQ-30",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6, pp. 210-235, 2001.
- [16] S. J. Cho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scale of the concep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Culture Institute, 49, pp. 233-258, 1986.
- [17] K. O. Chang, J. H. Lim, D. Y. Bae, "A path analysis model for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5), pp. 2711-2723, 2014.
- [18] S. J. Kang,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life-satisfaction in Korea", Research of Economics, 58(1), pp. 5-36, 2010.
- [19] Y. H. Choi, K. S. Paek, "The correlational study on health-promoting behavior,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1), pp. 39-48, 2002.
- [20] J. Y. Park, S. J. Shim, H. G. Lee, "2012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method", Research Report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Development Institute, 2012.
- [21] Y. M. Jung, "Life stress, coping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3), pp. 1279-1291, 2011.
- [22] M. K. Choi, S. Y. Ahn, "Mental health, self-efficacy, self-esteem and emotional support of the people with chronic physical illnes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1), pp. 439-452, 2015.

노 효 련(Hyo-Lyun Roh)

[정회원]



- 2001년 8월: 대구대학교 재활과학 대학원 (이학석사)
- 2006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 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영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전임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신경계 물리치료, 아동치료, 운동치료